

일주문

조계사 떡나눔 행사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11월 11일 북인사마당에서 떡나눔 행사 '우리 떡하니 사랑합니다'를 개최했다.

어르신 위한 종합 예술제
양양군노인복지관장 우성 스님은 '은빛청춘! 꿈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로 11월 14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종합예술제를 실시했다.

불교인권상에 김철관 기자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11월 11일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가 수상하는 제20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창재 감독 언론 시사회
불자 이창재 감독은 호스피스 병원 이야기를 담은 다큐 <목숨> 언론시사회를 11월 11일 CGV 왕십리에서 개최했다.

남지심 작가 정각원 강의
소설가 남지심 작가는 11월 15일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문학과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통판화 공모전 대상에 정찬민 작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주최하는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 대상에 정찬민 작가(사진)가 선정됐다. 정 작가는 월인석보 팔상도 여덟 장면을 전통 판각 방법으로 재현했다.
정찬민 작가는 1958년생으로 철재 전통각자보존회 회원으로 2013년에는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원주전통판화공모전에서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예총에서 선정한 전통공예 명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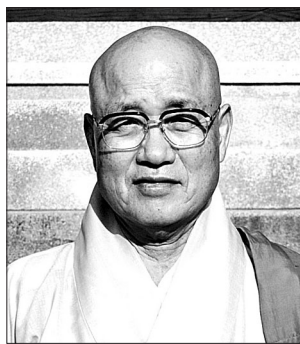
제1회 자비명상 축제 및 마정수기 법회

자비명상(대표 마가)은 11월 8일 안성 굴암사에서 제1회 자비명상 축제 및 마정수기 법회를 열었다. 이날 축제에서는 자비명상 회원들은 보시로 모은 쌀 10Kg 100 포대를 준비해 안성시에 전달하고 명상 법회를 진행했다. 또한 마가 스님은 28명의 스님들에게 국가등록 민간자격 자비명상지도자 자격증을 수여했다.
정혜숙 기자

자비보시행 · 생활불교 실천의 산증인

진흥원 제12회 대원상 정련 스님 · 금강경독송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이 수상하는 제12회 대원상 대상에 정련 스님(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 동국대 이사장)과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선정됐다.
진흥원은 11월 11~12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포교 부문과 콘텐츠 부문 수상자를 결정했다. 포교대상 출가부문에 △대상 정련 스님 △특별상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이 선정됐다.
재가 부문에는 △대상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용) △특별상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광명회) △장려상 불교영어도서관(관장 정지원)이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
출가부문 대상 수상자인 정련 스님은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유치원을 통한 어린이 포교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 동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대학 내 불교정신을 구현한 점과 지난 40여 년간 내원정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와 교육 시설 13 곳을 운영한 점이 인정받았다.



대원상 포교대상 출가부문 수상자 정련 스님(왼쪽 사진)과 재가부문 수상자 금강경독송회(오른쪽 사진)



독송과 경전 보급을 통해 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수상에는 호국불교를 표방하며 한국문화 알리기 책자 보급 및 한식 시식회 등 해외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한국 불교 알리기를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가 인정받았다.

콘텐츠 부문은 대상 수상작이 없으며 △특별상에 속명여대 송혜진 교수의 가족 음악극 '부처님, 용궁 가시다' △장려상에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 연구원(원장 이종대)의 모바일 앱 '용궁에서 온 보물' △양경수 작가의 웹툰 '부처님의 10대 제자 THE TEN' 등을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특별상은 5백만 원, 장려상은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11월 19일 오후 4시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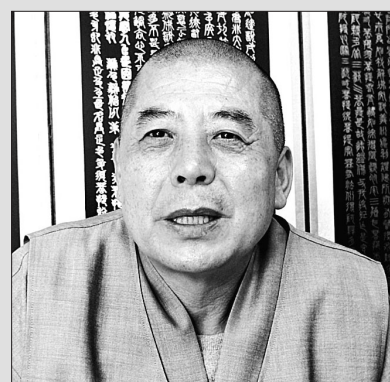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유식학 교육 통해 중도교육 질 높이겠다”

제 15대 법상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해월 스님

“스마트폰, SNS 등 뉴미디어가 대중화되는 현대사회서 한국불교는 기존의 낡은 포교 방식의 골때를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다시말해 아직도 만연화된 기복신앙서 탈피해 마음공부와 정신교화를 포교의 핵심 전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종도 소의경전인 <해심밀경>을 근간으로 한 유식 교육에 힘쓸 방침입니다.”
11월 12일 대한불교 법상종 제 15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심지 해월 스님(사진)은 앞으로의 각오를 이렇게 피력했다. 해월 스님은 “법상종은 각행일만과 자각각타의 기본 교리를 바탕으로 만법유식의 진리를 체득하고, 마력신행을 실천함으로써 업장을 소멸하고 심선운동을 전개

해 용화세계를 실현함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13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종단입니다”라고 종단 소개로 첫 말씀을 열었다.
이해 해월 스님은 “현재 법맥을 유지하는 대한불교 법상종은 1969년 창종했으며, 280여개의 사찰에 약 300여 스님들이 소속돼 있다”며 “올해는 지역포교 원년의 해로 삼아 전국 각 12개 교구총무원 산하에 종단이 관리하는 포교원을 설치해 도심 포교에 전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법상종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총무원 청사 건립이다. 이에 대해 해월 스님은 “3년여 각고의 노력끝에 법상종 총본산인 안성 쌍미루사 앞 3천여평 부지를 총무원 청사 건립을 위해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수목장과



유골 봉안당 등 장례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총무원 청사와 중도 교육관, 요양원 등의 시설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해월 스님은 중도교육의 중요성과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님은 “현재 승려를 포함한

중도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3박 4일간 이뤄지고 있다”며 “횡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의 소의경전인 유식학 전문학자 및 스님들을 대거 초청해 심도깊은 특강과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월 스님은 총무행정을 총무원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로 재편해 종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할 개념의 종찰을 늘리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스님은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구상할 것”이라고 결의에 찬 어조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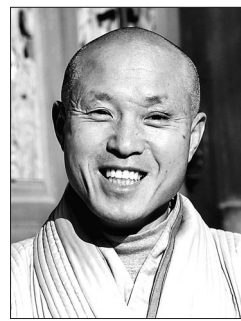
한편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2004년부터 (사)대한불교법상종 이사장 겸 총무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안성 쌍미루사 주지, 안성 경찰서 경승위원회도 겸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한국에 시집온 다문화 여성들 희망 갖게 되길”

이주여성 위해 달팽이모자원 개원한 진오 스님

한국인 남편과 사별 · 이혼 등으로 혼자 아동을 키우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 달팽이 모자원이 11월 5일 정식 개원했다. 경북 구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사진)이 구미시 지산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매입, 관련 시설을 설립한 것이다.
“전국 217곳에 다문화 지원센터가 들어설 정도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주 여성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주여성 7천여명 가운데 1백여명이 이

혼했고 90여명이 남편과 사별했다. 현재 달팽이 모자원에 입주해있는 가정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 여성과 아동 등 4명, 앞으로 3가족이 더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25만원씩 공과금을 받지만, 3년뒤 1천만원 자립기금으로 고스란히 돌려준다. 또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담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며 확실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취업 알선에도 나선다.
진오 스님은 시설마련을 위해 마라톤으로 모은 금액 1억3천만원을 고스란히 털어넣었다. 주택 구입자금 중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대출금으로 마련했다. 당장 운영 인건비 마련도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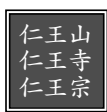


듯한터라 일일이 지역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후원에 나서실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구미시 마트시터 기부와 삼성 365봉사팀 임직원들이 전기 설비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고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사가 이불을 기증하기도 했다. 12월 3일에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피아니스트 임동창 등 여러 출연진들과 함께 자선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달팽이는 느리다. 그러나 다문화 모자가족도 충분한 관심이 주어지면 그 나름의 속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고 진오 스님은 말한다.
(후원계좌:농협 301-0122-9445-11)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동산반야회 동산인의 밤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이상우)은 11월 12일 삼일빌딩에서 '동산반야회 창립 제32주년 기념 및 동산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염상호 건영육영재단 이사장의 연구비 지원금 전달식과 동산상 및 공로상 수여식, 동산인 화합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인왕종 창종 선포



귀의 삼보하옵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석가세존을 교주로 받들고 무학대선사를 창종조로 받들고 기산 대종사를 종정예하로 받들어 미래불교 발전과 불법홍포를 위해 선과 교를 봉행 수행하고 불국정도를 실현하고자 불기 2558(2014)년 4월 7일 대한불교인왕종 창종을 선포하고 제방에 고합니다.

종정 기산 대종사

종정 사서실장 대경

원로의원 보문, 대호, 성관
총회의장 보문

총무원장 대련 교육원장 무공 포교원장 정각 감찰원장 법성 선원장 유리광
총무부장 학천 재무부장 해송 포교부장 상품화 봉사부장 백련화
복지부장 이은경 문화부장 이은선 기획실장 대경